

‘리베이트 수첩’ 300여명 중 혐의 입증 6명 뿐

광주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차용증 거래 불법성 못 밝혀 병원장 등 내주 검찰 송치...경찰은 무혐의 ‘짜주기’ 논란도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역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장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해말 도매업체 대표의 차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리베이트 수첩’에 대한 수사 결과다. 수첩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경찰관·공무원·언론인 등 수백명의 명단이 있었지만 혐의를 입증한 피의자는 6명 그쳤다.

특히 수첩에 언급된 경찰관 5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로 내사 종결해 ‘짜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도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의료법·약사법 위반)로 광주·전남지역 4

개 병원 의사·종사자, 약품 도매업체 대표 등 5명에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약품 납품 대가로 도매업체 대표 A(47)씨로부터 수천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장 B(53)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6회에 걸쳐 의약품 매출의 20%를 수수하는 등 총 1억5000만원을 챙겼다. 또 다른 병원장 C(38)씨는 병원 개설 뒤 거래를 약속하고 2016년 2월에 일시금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의사 D씨는 2100만원을, 전남 모 병원에 근무하는 여직원 E(45)씨는 3600

만원을 A씨에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B씨는 “빌렸다”고, C씨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혐의가 확인된 병원장 등을 다음 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일 병원의 세금 감면을 청탁받고 각각 43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남지역 모 세무서 간부공무원(51)을 구속하고, 전직 세무공무원인 세무사(61)를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 의약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는 지난해 12월29일 도매업체 대표 A씨의 사무실과 승용차 등을 압수수색해 리베이트 수첩을 확보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수첩에는 의사·세무공무원·경찰관·언론인 등 광주·전남지역 각계 인사의 명단과 함께 돈을 준 일시, 장소, 금액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경찰은 이 중 수첩에 금액액 수가 기록된 30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고, 대가성이 있는 의사와 세무공무원 등 6명을 입건했다.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은 경찰관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이들 경찰관은 사건 이해당사자와 ‘부적절한 자리’를 한 것으로 보고 경찰 자체적으로 검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경찰은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으로 굳어가는 ‘차용증에 의한 거래’의 불법성을 밝히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현금 거래나 차용증에 의한 거래가 일반적이다”면서 “차용증에 의한 거래의 경우 리베이트 의심은 가지며 돈을 빌리고 갚은 내용이 계좌에 명시돼 있어 형사 입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5·18 초등학교 교재 이달말 나온다

역사 제대로 가르치도록

5·18기념재단 2중 제작

5·18민중항쟁을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서술한 교육 교재가 이달 말 출간된다.

5·18기념재단은 초등교육의 단계별 특성에 맞춰 편찬한 5·18 교재 개발을 마치고 출판·유통을 준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교재는 초등 3·4학년용과 5·6학년용 2종으로, 참고용 도서다. 학습발달 단계에 따른 역사적 배경 이해도를 구분 기준으로 삼았다. 교재는 민주·인권·평화 등 5·18 가치 정립에 주안점을 뒀다. 3·4학년용은 가치 탐구를, 5·6학년용은 역사 흐름과 의의 전달을 학습 목표로 설정했다.

재단은 5·18이 발생한 시대 배경을 부실하게 서술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자칫 잘못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한 현행 초등 교과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교재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광주시교육청과 2008년 12월 단행본으로 된 초등용 인성교과서를 출간한 바 있다.

이번 교재는 기존에 펴낸 것보다 삽화와 사진이 대폭 보강된 것이 특징이다. 새로 개발한 교재는 조만간 시중 서점에 유통할 계획이다. 학습보조 교재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시·도교육청에는 기존 인성교과서처럼 보급한다.

5·18재단이 기획하고 류시현 광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가 책임 집필한 교재에는 현재 초등학교·5월 단계 관계자·연구자 등이 참여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부적절한 식사’ 했지만 금전 거래내역 없어

경찰 5명 무혐의 이유는

광주경찰, 감찰 조사는 진행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증거물인 ‘리베이트 수첩’에 거명된 경찰관 5명에 대해 내사를 벌였지만 모두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 다만, 뇌물을 준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와 ‘부적절한 자리’를 한 점을 들어 경찰관 2명의 내사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리베이트 수첩에 거명된 경찰관 5명 중 도매업체 대표 A씨와 부적절한 자리를 한 경찰관 2명에 대해 내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익명의 진정서를 받아 광주·전남지역 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체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12월29일 약품 도매업체를

압수수색해 일기형식의 수첩 2권을 확보, 수첩에 거명된 광주·전남지역 8개 병원 의사와 경찰관·세무공무원·언론인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수첩에는 수사를 담당했던 B경위와 사건을 지휘했던 C총경이 업체 관계자와 식사를 한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뒷말을 낳았다.

경찰은 이들 2명의 경찰관에 대해 ‘뇌물죄’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지만 형사 입건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뇌물죄는 돈이 오간 정황이 없고, 김영

란법 적용에 대해서는 B경위는 자신이 식사비를 계산했고, C총경은 도매업체 대표 A씨와 고교 동창이어서 김영란법 예외 조항인 ‘사교’의 범주에 든다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 등에 대해 은행계좌를 확인했지만, 금전 거래내역이 없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청에 수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가면서 수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사 진행 중에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원전 검사 오류 한수원 7억여원 과징금

원자력발전소 핵심부품 검사를 37년간 임의로 진행한 한수원(주)은 2015년 7월 10일 8면(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총 7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열린 제65회 회의에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빛원전 1~6호기를 포함한 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자력발전소 16기에서 원자로 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 등 6건 검사 오류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한수원은 지난해 8월 고리 4호기의 원자로 용기 용접부 검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검사 대상 17곳 중 2곳의 위치를 잘못 선정해 검사했다. 이에 한수원은 전체 원전으로 조사를 확대한 결과 한빛 2호기에도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찾아냈다.

한수원 측은 청문과정에서 자신신고한 사실을 감안해 과징금을 경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원안위는 중요 안전기에 대한 검사 소홀했던 점, 동일한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된 점,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50%)로 반영해 과징금을 징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구속 면해줄게’ 2억 쟁건

법조 브로커 3명 구속

광주지검 수사과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정모(51)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정씨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인 지난해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수사 대상자 가족으로부터 총 2억415만원을 받아 쟁건 혐의다.

정씨는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를 잘 처리해줄게. 가족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등의 명목과 함께 돈을 받아 쟁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월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동일한 수법으로 5억여원을 받아 쟁건 또 다른 법조브로커 형제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불구속 수사를 약속해 거액을 건넸는데 왜 가족이 구속됐느냐’는 해당 가족의 전화를 받고 별도의 수사를 진행, 법조브로커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또 다른 법조브로커 1~2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내가 만든 꿀떡 어때요?” 9일 광주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체험실에서 열린 ‘조물조물 전통음식 어린이 체험교실’에 참가한 꼬마어린이집 원생들이 강사와 함께 사탕떡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9일 오후 3시30분경 완도군 완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완도경찰에 따르면 최모(47)씨와 최씨의 딸(11), 아들(6)이 숨진 채 안방 침대에서 발견됐다. 안방에선 번개탄이 함

께 발견됐으며, 최씨는 이날 친형에게 ‘뛰어내려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씨가 최근 부인의 잦은 가출로 가정불화를 겪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전화 좀 쓰자”며 휴대전화 들고 된 20대, 지명수배도 탄로

○~지인과 낯선 인물을 가리지 않고 접근해 “전화 좀 쓰자”며 휴대전화를 손에 넣은 뒤 도망가는 수범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지명수배 사실마저 탄로나면서 구속될 처지.

○~9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잠모(24)씨는 지난해 12월 22일 광주시 서구의 한 PC게임방에서 만난 소년원 동기

박모(22)씨에게 “잠시 전화 좀 쓰자”며 휴대전화를 빌린 뒤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범으로 총 4대의 휴대전화(27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

○~조사결과 그는 사기와 절도 등 혐의로 7건의 수배가 내려진 인물로 경찰은 장씨가 접촉했던 게임 아이디를 바탕으로 추적,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의 한 PC게임방에서 붙잡아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김형호기자 young@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신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예능		음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Passion [열정], Vision [비전], Truth [진리] 로 중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대학원 신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 22(수) 오전 10시~18시
		신학과(Th.M.)	○	
일반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2017. 2. 22(수) 오전 10시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2017. 2. 22(수) 오전 10시
		국제대학원	석사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 (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명 (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2. 13(월) ~ 20(월)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7. 2. 22(수) 오전 10시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막지사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